

- ◇ 1. 「과거집」
- ◇ 2. 「과거집」
- ◇ 3. 「과거집」
- ◇ 4. 「과거집」
- ◇ 5. 「과거집」
- ◇ 6. 「과거집」
- ◇ 7. 「과거집」
- ◇ 8. 「과거집」
- ◇ 9. 「과거집」
- ◇ 10. 「과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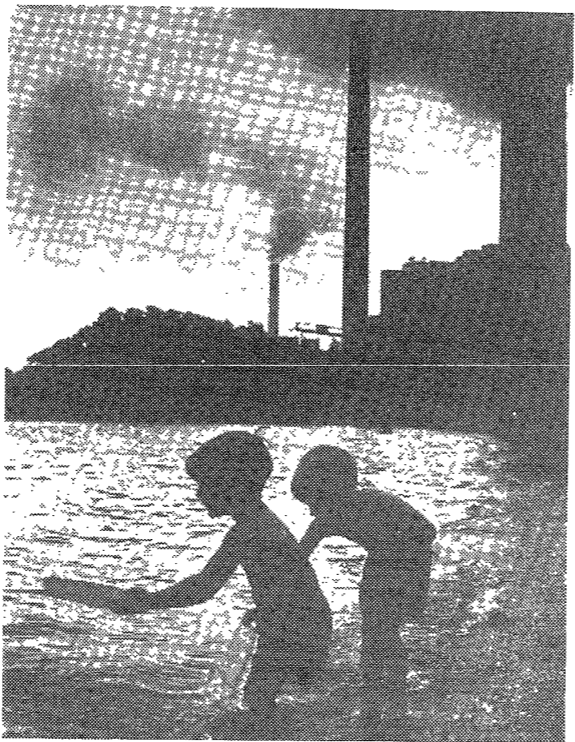
1. 「과거집」

「과거집」은 「과거집」의 저자 김지하의 시집이다. 김지하는 1945년 10월 13일 태어난 시인이자 시평가이다. 그의 시는 현실 비판적 성격이 강하며, 1970년대 민중시 운동의 선봉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이 시집에는 그의 대표작인 「무궁화꽃이 내피어」, 「노랑머리」, 「바다를 건너」 등이 실려 있다. 김지하는 1987년 10월 13일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공해산업 인간도 자연도 살고 싶다

「경제성장」과 「미명」이라 온갖 특혜받아야
다국적 기업이 돈과 권력이 「국영」 수출

공해산업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해산업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해치는 산업이다. 공해산업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해산업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해산업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성장 미명이라 온갖 특혜받아야 다국적 기업이 돈과 권력이 「국영」 수출

다국적 기업이 돈과 권력을 「국영」 수출하는 모습은 경제 성장의 미명이다. 이 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인간과 자연 모두를 해치는 공해산업이 번성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为名으로, 다국적 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간과 자연 모두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집」은 김지하의 시집이다. 그의 시는 현실 비판적 성격이 강하며, 1970년대 민중시 운동의 선봉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이 시집에는 그의 대표작인 「무궁화꽃이 내피어」, 「노랑머리」, 「바다를 건너」 등이 실려 있다. 김지하는 1987년 10월 13일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과거집」은 김지하의 시집이다. 그의 시는 현실 비판적 성격이 강하며, 1970년대 민중시 운동의 선봉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이 시집에는 그의 대표작인 「무궁화꽃이 내피어」, 「노랑머리」, 「바다를 건너」 등이 실려 있다. 김지하는 1987년 10월 13일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돈과 권력이 「국영」 수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돈과 권력을 「국영」 수출하는 모습은 경제 성장의 미명이다. 이 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인간과 자연 모두를 해치는 공해산업이 번성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为名으로, 다국적 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간과 자연 모두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집」은 김지하의 시집이다. 그의 시는 현실 비판적 성격이 강하며, 1970년대 민중시 운동의 선봉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이 시집에는 그의 대표작인 「무궁화꽃이 내피어」, 「노랑머리」, 「바다를 건너」 등이 실려 있다. 김지하는 1987년 10월 13일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공해산업 인간도 자연도 살고 싶다

공해산업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해산업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해치는 산업이다. 공해산업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해산업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과거집

「과거집」은 김지하의 시집이다. 그의 시는 현실 비판적 성격이 강하며, 1970년대 민중시 운동의 선봉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이 시집에는 그의 대표작인 「무궁화꽃이 내피어」, 「노랑머리」, 「바다를 건너」 등이 실려 있다. 김지하는 1987년 10월 13일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과거집」은 김지하의 시집이다. 그의 시는 현실 비판적 성격이 강하며, 1970년대 민중시 운동의 선봉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이 시집에는 그의 대표작인 「무궁화꽃이 내피어」, 「노랑머리」, 「바다를 건너」 등이 실려 있다. 김지하는 1987년 10월 13일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과거집」은 김지하의 시집이다. 그의 시는 현실 비판적 성격이 강하며, 1970년대 민중시 운동의 선봉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이 시집에는 그의 대표작인 「무궁화꽃이 내피어」, 「노랑머리」, 「바다를 건너」 등이 실려 있다. 김지하는 1987년 10월 13일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과거집」은 김지하의 시집이다. 그의 시는 현실 비판적 성격이 강하며, 1970년대 민중시 운동의 선봉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이 시집에는 그의 대표작인 「무궁화꽃이 내피어」, 「노랑머리」, 「바다를 건너」 등이 실려 있다. 김지하는 1987년 10월 13일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鹿野苑

鹿野苑은 한국 최고의 명품 차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우리의 전통 차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차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는 자연의 정수를 담은 건강한 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차를 맛보세요.

“東大 Diary를 잠에서 깨웁시다.”

세상의 가치와 의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東大 Diary」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기록하세요.

- 단재기념사업회 후원 / 관공서, 기념품, 연차, 서울 경주캠퍼스 구내문방구 및 서점 구입
- 구입처: 서울 경주캠퍼스 구내문방구 및 구내서점
- 주요 수록내용: 1987~1988년 카렌다 / 서울 경주캠퍼스 화보 / 학사일정 / 연차행사예정표 / 일·월별 스케줄 / 메모 / 요과적 공부방법 / 취업대책 / 전국대학주요특성 / 강의시간표 / 각종지도 등
- 가격: 2,300원

내일을 설계하는 젊은 지식인의 광장!

* 국내외의 지식정보를 가득찬 「교보문고」에는 시대를 호응하는 멋진 감동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정열과 꿈과 낭만의 나라를 떠나는 젊은 지식인들이 좋은 책과 만나는 「교보문고」는 풍요로운 지혜의 광장입니다.

- 국내외의 최신대식 단일판매장에 국내외서적을 발라하여 누구나 찾기 쉽게 진열해 두고 있습니다.
- 영어·불어·독일어·스페인어·일본어 등 세계 주요언어권의 신간도서들을 수입 공급하고 있습니다.
- '87년 신학기교재는 물론 영문원서교재(아시아 판) 및 리프린트판과 외국어회화 교재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 정부간행물센터와 'Asian Business' 국내출판 및 특수간행물의 수입을 대행하고 있으며, 도시구입상점에 진열이 용이하다는 '특별과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계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은 물론 전세계 주요간행물을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시비 스캐드리는 'UMI'의 한국출판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단행본·경기관행물 등의 한국출판본을 대량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서울 중로구 종로1가 / 교육부합법빌딩 / Tel. 730-7891(대) / 도서안내 735-6151~2 / 외국서적부 UMI·OECD 734-7374

탈수습기

"자! 실존의 나라를 펼쳐 飛翔하자꾸나"

진실을 원하는 독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진실된 사실만을 신통도록 노력할 것이다.

추위도 서서히 풀러가고 따스한 햇살이 화사하게 비치는 어느 봄날! 책상 앞에 평범 원고지를 놓고 잠시 생각해 잠긴다. 지난 몇달 간의 생활들이 담배잎을 타고 떠오른다. 귀기울여 눈을 뜨는 것이 있어 살펴보니 「수습기자 모집」 社告였다. 평소부터 무언

가 뜻깊은 대학생활을 보낼 일이 없을까 고민해 오던 터라 그것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준 듯했다. 어느 신배와 술자리를 같이 했을때의 일이다. 그 날 배는 동남산인 부모 특던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전공이 신문사이고 부전공으로 각자의 학과강의를 듣는다.』 우리는 열렬한 표정이었다. 그 때 정말 따듯했다. 평소에는 나는 말대꾸를 잘하는 편이다. 주의를 배반한 것은 아니나, 그날이기에 한 부동한 禁語(?) 이 러지내

고야 받았다. 그 하루동안은 좋은 말로 『에!』 또는 『아니오!』 만을 대답해야 했다. 시한부 병어리(?) 형제들하고 나니 내 몸무게가 훨씬 줄어든 느낌이였다. 이제 탈수습이라는 것이 막상 내게 다가오니 기쁨보다도 부끄러움이 앞섰다. 진실을 원하는 독자를 앞에 부끄럼없이 나서야 되기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것이다.

고귀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고통을 겪는 아픔의 과정이 있게 마련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더욱더 새롭고 위안을 준다. 부족한 점이 많은 나이지만 신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正道를 걸어와야한다고 믿는다.

진실을 원하는 독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진실된 사실만을 신통도록 노력할 것이다. 배에 진실을 원하는 독자를 항상 먼저 생각하며 소신있는 기사가 되도록 정진하리라 다짐해본다.

『문과대 국문과』

지금에도 펜은 나를 더 큰 구속과 속박으로 묶으려 한다. 아 니, 묶이고 싶어 함이 리라.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할의 방황을 느끼고 간에게 있어 신문사라는 것은 새로운 선택의 의미로 다가 왔다. 활동과 고사수에 포박되는 의의는 흥수에서 느껴지는 후회와 방황과 고사

고 진한 외로움의 편린들. 인간은 어차피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진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 나의 모습을 현실 상황에서 더듬는 세계(?)

지금에도 펜은 나를 더 큰 구속과 속박으로 묶으려 한다. 아 니, 묶이고 싶어 함이 리라.

어머머머머 결정(??)을 풀고 뛰어들어 주머니가 지닌 몇개월은 원방지출, 죄송 우물 그쳐 부끄러워 부대끼며 근성으로라도 버텨왔던 것이었다.

프로스트의 시 「가지않는 길」이 동대신문사라는 허물한 절도(??)에서 나를 괴롭힌 적도 일찍이 없었었다.

나는 하나의 선택에서 파생된 수 많은 고뇌의 기억들을 뒤로하고 내 스스로 선택한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지니고 이 길을 헤치고 가 리라.

이제 이 길이 지면에 나타날때쯤이면 수습기자라는 허물을 벗고 나의 선택의 다름을 시험받게 되리라 믿는다. 내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에 지난 몇개월을 받은 고독에서 벗어났을 때의 기쁨과 의지와 애착을 심어왔기에 오늘도 활자의 기나긴 부침의 전선에 출정할 것이다.

민중의 정의를 향한 투쟁을 지지하며, 허공에 떠도는 진실을 찾아내어 일깨워 주려는 것, 지금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문과대 사회학과>

어느 한 곳에 몰두 한다는 것이 내게 있어 솔직히 한이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내게로 와주지 않았듯이 내 소중히 간직하는 푸른 기억만으로도 못 끝낸 몸으로 부둥켜안고 있는 것, 지금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문과대 임학과>

내가 찾아야 할 것은 굴절과 오욕이 투영된 자기보호의 합리화속에 포복해 버린 시대의 양심인 것이다.

아득한 날, 침묵의 鐵籠(??)에서 눈도, 귀도, 열아름은 채

판도 함께 해야 할 것들을 남은 빈 곳에 가득 심는 것이 내 몸아픈 것을 피곤에 지쳐 잠든 얼굴로 화보 한장 들고 하늘 보노라면 희미한 희미함에 파르르 떨던 심장, 곧 밤이 오리라. 그러면 이 동양의 언덕 위에 차가운 달이 남몰래 웃는것을

바라보며 새롭게 꿈꾸리. 내 모습을 아는 이 하나없다. 내가 기다렸던 것들이 내게로 와주지 않았듯이 내 소중히 간직하는 푸른 기억만으로도 못 끝낸 몸으로 부둥켜안고 있는 것, 지금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문과대 임학과>

내가 찾아야 할 것은 굴절과 오욕이 투영된 자기보호의 합리화속에 포복해 버린 시대의 양심인 것이다.

아득한 날, 침묵의 鐵籠(??)에서 눈도, 귀도, 열아름은 채

부차적인 목적에 치중하여 「공익」은 있으며 「예측」은 없는 「현상」을 보여주는 「인본」. 아울러 「한국인의 초상」기부터 「우리에게 지어준 파벌」의식도 타파되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문화란 당대의 평판적 삶을 표현한다. 따라서 현실의 표현을 통해 민족의 삶과 문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안되며 민족과 같이 호흡하고 민족의 생활과 밀착해 있는 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연기의 입장에서 너무 조금함을 보여서는 안되겠다. 워크샵을 거치는 대부분의 예비기자들이 단시일내에 어떤 효과를 누리고자하는 조급함을 지니고있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예술성이 결핍되는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적 척도는 그 나라에 있는 극장수에 달한다는 말이 있다. 진정한 문화적 진흥을 위해서는 연기자들이 마음놓고 연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부차적 문제와 시설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요청된다 하겠다.

헬멧이 달랠듯 연극은 인생의 거울일 수 없다. 단순한 모방이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창출해 낼 때 보다 나은 미래로서의 인생이 존재한다 하겠다.

『말 하진 하나부지?』

지상의 혼돈속으로 내뿜겨진 유약한 修飾의 卵은 각인의 아픔으로 아프리카 사스의 창조를 향해 몸부림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진실과 함가치가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혼탁한 세태속에 순리와 도리를 배려와 예리도 왜곡되는 현실이 밀물처럼 내게다가 왔을 때 초라한 나의

유경진 기자

유경진 기자

유경진 기자

유경진 기자

유경진 기자

유경진 기자

유경진 기자

유경진 기자

EW大 교향학생을 만나서

東岳路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동해, 여흥, 하이킹, 독서 등의 취미와 함께 『10년 이상 불교있는 불루우브와 플랜지 호운의 연주술씨를 보여드린것, 통해 삼십한금요』 라는 동남이런 일부에서 그녀의 쾌활한 성격과 그녀의 다양한 취미생활을

루즈 앤스嬢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本校와 자매교인 EW大에서 지난날 31일, 교향학생 자격으로 홀로 중국에

文化진단

『人生이란 다만 걸고있는그림자. 주어진 시간에 무대에서 서서 태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초라한 배우에 불과하다』라는 맥베드의 독백을 통해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무대로 보고 우리를 각자를 연기자로 보았다. 이는 연극이 인생자체의 생생한 축소이며 삶과 밀착해 있다는말이된다.

그러므로 연극이아말로 인간의 광의적 표현중에서 가장 고차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래에 「소극장운동」의 붐에따라 우리는 연극이라는 종합예술에 근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이는 최고부적인 일이며 이러한 관점의 요구에

문화란 당대의 평판적 삶을 표현한다. 따라서 현실의 표현을 통해 민족의 삶과 문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안되며 민족과 같이 호흡하고 민족의 생활과 밀착해 있는 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연기의 입장에서 너무 조금함을 보여서는 안되겠다. 워크샵을 거치는 대부분의 예비기자들이 단시일내에 어떤 효과를 누리고자하는 조급함을 지니고있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예술성이 결핍되는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적 척도는 그 나라에 있는 극장수에 달한다는 말이 있다. 진정한 문화적 진흥을 위해서는 연기자들이 마음놓고 연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부차적 문제와 시설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요청된다 하겠다.

헬멧이 달랠듯 연극은 인생의 거울일 수 없다. 단순한 모방이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창출해 낼 때 보다 나은 미래로서의 인생이 존재한다 하겠다.

『말 하진 하나부지?』

연극계의 새바람... 워크샵에 집중이시금

부흥하기 위해 크고 작은 극단들은 연중 2~4번의 각인단체를 모집하여 참신한 배우들을 배출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연극이 total theatre 이기때문에 각 신인단체들은 워크샵을 통해 이론강의와 Body-training을 연마하면서 total한 인간적표현을 익히게 된다.

TV의 출현 및 영화의 등장 등은 연극계의 위대한 위기였다. 그러나 스크린을 통한 환상적 인간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상업적인 영화에 비해 한 時代, 社會의 종합적 표현으로서의 무대위에서 피가 끓는 한 인간의 예술은 관객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기 마련이다. 따라서 요즘에 들어 각 극단의 공연장에는

물론 워크샵까지도 불리는 대중들의 관심과 열기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질고 넘어갈것은 이러한 관심에 편승한 흥행성, 상업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참다운 예술로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극단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연수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관객유지나 광고등

물론 워크샵까지도 불리는 대중들의 관심과 열기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질고 넘어갈것은 이러한 관심에 편승한 흥행성, 상업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참다운 예술로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극단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연수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관객유지나 광고등

물론 워크샵까지도 불리는 대중들의 관심과 열기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질고 넘어갈것은 이러한 관심에 편승한 흥행성, 상업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참다운 예술로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극단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연수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관객유지나 광고등

물론 워크샵까지도 불리는 대중들의 관심과 열기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질고 넘어갈것은 이러한 관심에 편승한 흥행성, 상업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참다운 예술로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극단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연수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관객유지나 광고등

물론 워크샵까지도 불리는 대중들의 관심과 열기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질고 넘어갈것은 이러한 관심에 편승한 흥행성, 상업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참다운 예술로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극단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연수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관객유지나 광고등

물론 워크샵까지도 불리는 대중들의 관심과 열기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질고 넘어갈것은 이러한 관심에 편승한 흥행성, 상업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참다운 예술로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극단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연수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관객유지나 광고등

물론 워크샵까지도 불리는 대중들의 관심과 열기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질고 넘어갈것은 이러한 관심에 편승한 흥행성, 상업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참다운 예술로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극단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연수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관객유지나 광고등

본지에서는 문화,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진단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pæntilainərs]

깨끗한 여성을 위한것입니다.

생리가 아닌 때라도 여성에게는 늘 약간의 분비물이 있지요. 그래서 오후만 되면 벌써 팬티가 축축해지고 얼룩도 생겨 기분이 무척 불쾌해지죠. 특히 배란기, 임신전후, 피임제 사용시에는 더욱 심하답니다. 그럴 때 팬티 안쪽에 "후리덤 팬티라이너"를 살짝 붙여주세요. 그리고 하루 서너번만 갈아 주세요. 하루종일 기분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함을 즐기는 여성이라면 다 아는 것, 다 쓰는 것— 분비물을 깨끗이 흡수해 주는 팬티청결대 "후리덤 팬티라이너"입니다.

후리덤 팬티라이너의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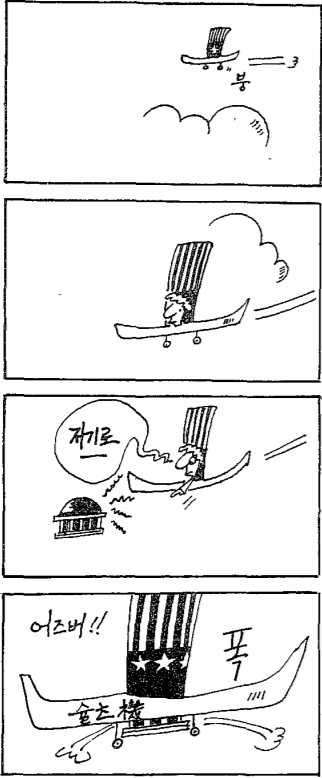
- 생리시, 질분비물을 흡수하여 항상 보송보송한 상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 배란기, 피임제 사용시에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중 팬티교환이 어려울 경우에 편리합니다.
- 생리리진과 끝날무렵에 사용함으로써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후리덤 팬티라이너

* 이는 미국 캄벨-클라크의 세계적 등록상표입니다. * REGD TRADEMARKS RIMBERLY-CLARK CORP., U.S.A.

여로니모

오 랑 <29>



情報과 人間理解

김광영 작
오늘날 인류는 첨단과학의 도전에 대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난제를 안고있다. 이와같은 시각에서 저자(필자)는 철학(과학)의 '정보와 인간이해'라는 저술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정보의 측면과 도덕철학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갑자문화사·292면·4천원>
필리핀사회의 혁명
아마도 구태여 작
이 책은 필리핀 민족 민주 활동가들이 있어서 최초 최고의 대중교육 수단이었다고 기술했던 서였다.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되는 필리핀 사회구조에 대한 분석, 미국과의 관계 규명, 봉건제 및 관료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분화 등 시대와 국가를 뛰어넘어 우리의 의의론적 지점에 중요한 사례를 제공해 줄 것이다. <공명체·263면·3천5백원>

계급·이데올로기·실천
N 애버트비 작
마르크스의 교설에 대한 각종의 해석과 세련화, 아울러 현용의 복잡한 맥락에 이 한 부분으로서 위치지어진 오늘날의 지식사회학 이론의 성립과 전개를 보여준다. 또한 이 책은 지식사회학을 각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 이론 현상과 대치시킴으로써 그것이 직면한 고립상태를 해소시켜 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학원사·238면·3천원>

이론小説

이상문작 片紙

(한국문학 3月号)

李相文의 「片紙」 (한국문학, 3월호)는 피신처로 삼은 군생활의 정박함과, 소외당한 인간의 어둡고 눈물겨운 삶, 그리고 그들의 同類愛를 감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 단편은 제 하루가 못되는 시간속에 일어나는 극한 상황과 일련의 사건을 다루었다. 주인공은 「나일규」 일명인데, 그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대학생이 되었고, 「정의」, 「민중」, 「동지」의 낱말과 만나면서 폐모대에 적극 참여하다 무기징역을 받고 수배당한다. 그리하여 몸을 숨기기 위해 입대를 했던 것이다. 그는 파견대의 불규칙도 알겠고, 입찰지표를 받으면서 열렬하게 당한 포경수술의 실을 뽑기 위해 본대에 들리게 된다.

입부를 마치고 위병소를 나설 때는 차량통행이 어려운 정도로 눈이 쌓였다. 동생의 편지 내용을 기억하다 발을 헛디뎠다. 발목 부상을 입는다. 「영춘옥」 술집어자에게 도움을 받아 응급처치를 한다. 고향을 참으며 버스정류장을 찾았으나 교통정체이다. 우체국에서 부대로 돌아갈수 없음을 알고 여관을 찾는다. 그날따라 면회일이다 빈방이 없었다. 아픔을 참으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다시 영춘옥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녀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발을 새우고 귀대하는 버스를 탄다.

이 소설의 재미는 가중되어가는 절박감과 한계상황의 설정이다. 그 등기의 핵심은 다리 부

극한 상황의 리얼리티와 밀교적 감동 획득할 수 있는 계기마련

상이다. 이것은 폭설 때문이요, 눈은 그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하였다. 이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불규칙을 수렴한 가파른 담판간 술을 마시려는 안락다는 처지, 근대라는 보이지않는 제도과 임무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생기와 리얼리티를 부여하면서 화음을 이룬것은 피신소 중 영동포역 앞 부리가 하숙에서 찬나 「한경애」와 하룻밤에 대한 기억, 지나간 군생활의 삽입이다. 「한경애」는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셀이던 임질을 읊었다. 임질은 사적후련중 통풍과 함께 발병된다. 그때의 절박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아 그의 피신은 아이러니이다. 이 작품의 「나일규」가 몰래 보게된, 어머니 앞으로 써어진 술집여자의 편지가 매개가 되어 이루어진 동류애에 기인할 것이다. 그 편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하여 건강을 걱정했으며, 어머니로 하여금 관점함을 잃게했던 「원수」를 원망하고 이렇게 이어진다. 『내 몸은 말이



<동문·문학평론가>

없고, 회사에서도 신입이 두터워요. 기술이 좋으니까요. 지금 다니는 회사로 스카웃된 뒤로는 봉급도 많이 올랐어요. 돈은 달마나 20만원씩 보내줬어요.』 이런 지의 거짓은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고, 아픔이며 사랑인 것이다. 독자는 여기에서 또 다른 아이러니를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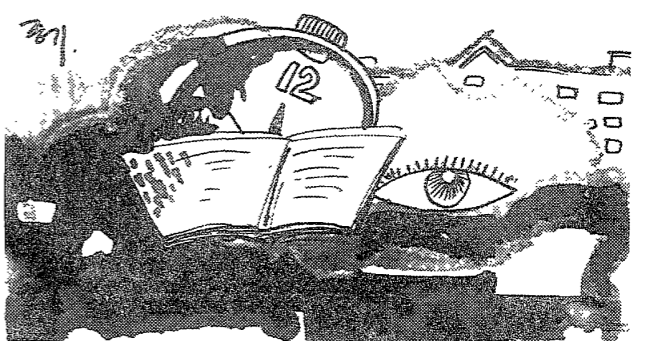
「나일규」가 택한 피신처는 피신처가 아니었다. 그의 군생활은 대학생활과 동일한 신상에 놓인다. 아니, 달은달로 걸린다. 그는 난감한 정황에 처할 때마다 최후방편이 터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그는 여전히 꽃기는 듯한 강박관념에 부대간다. 그날 하루 중 그는 무려 열여섯 번 이상 여섯 번이나 시간을 확인하고 있음은 이를 입증한다. 또한 그는 위기나 당혹스러움에 처했을 때 「서들의 위기처치수칙」을 활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로 보

「바쁨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신입생에게 주는 선배의 말 한마디

가끔씩은 회의 속에서, 고독스러워하며 방황하고 절망하면서 보내왔던 캠퍼스에도 어느새 세 번째의 불기운이 울리고있고 이렇게 감히 편을 들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선배가 되어버린 나의 모습에서 세월이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가진, 늦었지만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未知的 세계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벅찰

먼저 「바쁨」을 권하고 싶습니다. 쓰기에 따라서 남을수도 모자랄수도 있는 시간을 적절히사용, 인격형성의 거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갖게되는 이때, 그저 갈팡질팡할것이나 아니라 모든 분야의 책을 섭렵하는 호기도 부리고 의욕적으로 습득할수있는 「바쁨」 대학생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치관의 설정을 위



현실을 직시하며 가슴과 가슴을 부대끼고 시대의 험난한 질곡을 깨쳐 나갈 역량을 길러야겠습니다.

가져야겠습니다. 방관자로 자기 곁에기에 안주하려는 안일함을 여러분들은 적극 거부하십시오. 시대를 아파하고 고통할수 있는 젊은이여사를 이끌고 나가는 주체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치와 현실을 깨쳐나갈 역량을 길러야 하는 미래를 설계할수 있는 대학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을 빕니다.

박 훈 <문과대 사학과>

「서울 房子」공연
오는 26일까지 미려내 소극장서 극단 대중에서는 김용택, 김중흥연출의 「서울방자」를 오는 26일까지 미려내 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공연시간은 평일 오후 4시 30분, 7시 반 하루 2회 공연.

「한해달상고사 강좌」개설
6월24일까지 경원빌딩 4층강당서
사단법인 한해달에서는 올바른 민족사관의 정립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6월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경원빌딩 4층강당에서 「한해달 상고사강좌」를

개설한다. 수강신청접수 및 자세한 문의는 한해달사무국 (738-6198)。

「反拷問展」
오는23일까지 그림마당 민예민중미술협회에서는 「反拷問展」을 오는23일까지 그림마당 민예에서 연다. 1·2부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김용택·김대철 등 80명의 작가가 참가하며 두류·광주시각대체연구소 등의 공동작도 선보인다. 4월중간의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인권의복을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용택, 슬라이드 강연도 함께 열리게 된다.

국토통일원 자료이용안내
국토통일원에서는 통일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통일원 자료 열람실에 관원자료용 비치하고 자료이용 회원제도를 아울러 운영한다. 북한및 공산권연구자료, 통일문제연구자료 및 국내외 정세관련물을 비치하고 있는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문의는 국토통일원 자료관리국 관리과 (720-2422)。

제5회 학생논문현상모집

오는 4월14일 원고 마감

우리네 歷史의 내과적 수순대가 여기 있습니다. 뜨거운 불투명으로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던 4. 19 그날의 함성을 오늘의 아픔을 달래듯 서술하기만 하면, 본래에서는 4. 19 27년만을 맞아 그날의 의미를 되새길 여러분의 참신한 논문을 아래의 같이 모집합니다.

1. 4. 19와 오늘의 학생위치
2. 민족, 宗教로서의 佛敎
3. 民主化와 改憲方向
4. 시장개방과 改革方向
5. 言法과 自由言論
6. 地域文化운동의 전망

※이상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목을 정하여 투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별에는 「논문현상모집원고」라고 朱書해 주십시오. <심사위원은 추후 발표>

東大新聞社

「낯선 여자의 합성」공연

내달 6일까지 창고극장에서 3·1로 창고극장 전속토요일제 여타 창간공연으로 로벨 토마작 「낯선 여자의 합성」 공연을 내달 6일까지 창고극장에서 무대에 올린다. 공연시간은 하오 4시 반, 7시 반 하루 2회 공연.

「위기의 여자공연」
오는 15일까지 산울림소극장서 극단 산울림에서는 시몬느·드보브와르작의 「위기의여자」를 오는 15일까지 일영동 연출로 산울림소극장에서 공연한다. 공연시간은 평일 하오 3시, 7시 하루 2회 공연.

보복세례

무엇정확의 주된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혹자는 오늘날의 美國 무역정책, 소위 「新보호무역주의」는 그 실용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초강국으로서의 美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보호가 아니라 自國만의 이익추구를 위한 경제외적 강제요, 압력이라는 논리이다. 이는 「시장개방만 하면 보복조치를 감행하겠다」

고 소리높여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그들의 입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美國은 이미 옛날의 날개들처럼 호랑이는 아니다. 매해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각 2천억달러를 넘고 있으며 외채만 하더라도 세계 모든 외채국의 외채를 전부 합한 것 보다 많아 세계 제 1의 채무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유럽·일본등의 선진국은 물론 한국·대만을 포함한 「개도국」에게마저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고 기어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때문에 그들의 무역·고용 및 생산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에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전제로 내세우며, 美國과 같은 수준의 市場開放을 하지 않으면 보복조치 하겠다는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 세계 제 4위의 외債高과 파산한 국방비 부담을 안고, 그나마 88년까지 95.4%의 개방률을 약속한 우리에게도 일괄 보복조치라는 것은 오히려 상호주의를 떠난 일방적 압력은 아닐런지. 미국도 무역보복은 또 다른 보복조치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勝>

공부보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

工夫不如人間

인간의 근본은 공부보다 먼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 가는 도리를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는 산간벽지의 어린이들

한마디의 잔치상을 차리는 암의 정성에서 흐를 배우고 땀야원에서 받음을 하는 암의 모습에서 근면과 성실을 배우며 눈동리에서 반짝이 인사하는 등네 어른들의 모습에서 애를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

● 강원도 영월군 서면 후타리 쌍용국민학교 후타리분교장 어린이들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면 가을에 새싹이 돋아나고 가을에 익은 열매를 따서 팔아서 품과 비바람을 이겨내야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정직을 배우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다들만 한 것이나 허전한 욕심도 없고, 남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멋있는 일만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이들이 곧 자라나서 먼 훗날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을 굳게 믿으며, 이들과 함께 작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에 투자하는
코오롱